



# 한가위는 미덕과 나눔이 담긴 날

## 즐거운 한가위의 유래와 민속 놀이

폭염과 수해로 큰 고통을 겪던 지겨운 여름이 갔다.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다. 노랗게 익어 고개 숙인 벼, 빨갛게 익은 사과 등에는 불타는 정열의 여름과 농부의 땀방울의 하모니가 담겨 있다. 가을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나타내는 계절이다. 오곡백과의 수확을 기뻐하는 추석은 조상들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열정이 담긴 날이다.

농사일이 마감돼 가면서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고 온갖 곡식이 풍성한 가운데 추석빔으로 새단장 하고 나니, 사람들 입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른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둥근 보름달이 밤을 대낮같이 밝혀 주는 날. 이 날을

언제부터 한가위라고 불렀을까?

<삼국사기>에서 유리왕 9년조에는 도성을 6부로 나뉘어 왕녀들이 7월 16일~8월 15일 길쌈을 해 어느 쪽이 많이 삼았는가를 겨뤘다는 기록이 있다. 길쌈 경쟁에서 진 쪽은 이긴 쪽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고, 이 때 노래와 춤과 놀이가 있었고 이것이 ‘가위’라고 불렀다는 기록이다.

일본 자카 대사의 <임당구법순례행기>에는 이 같은 가위의 풍속이 오직 신라에만 있다고 적혀 있다. 승려인 자카 대사의 기록은 당시 신라에서 민간 뿐 아니라 사찰에서도 큰 한가위행사를 치러졌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한국 불교는 민속과 전통을 이으며 민중과 함께 해왔다.

추석이면 지방마다 온갖 놀이와 민속이 열린다. 씨름 풍악놀이 줄다리기 그네뛰기 소놀이 거북놀이 벼꾸리기 소싸움 닭싸움 원님놀이 가마싸움 등. 이 놀이들에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경기도·충청 지방에서는 거북놀이로, 충청 이남 지방에서는 소놀이로 불리는 놀이는 실상 그 형태는 같다. 두 사람이 엎드린 위에 명석을 써우고 머리와 꼬리를 달아 소처럼 만든다. 이 소를 앞세우고 농악대와 동네 사람들이 마을 부잣집이나 농사가 제일 잘된 집을 찾는다. 대문 앞에서 “소가 배가 고프고 여물이 먹고 싶어 왔으니 주십시오”라고 외치면 주인이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일행을 맞는다. 일행은 술과 음식을 대접 받고 한바탕 농악을 치며 춤추고 논 뒤 다른 집으로 건너간다.

장수의 상징인 거북과 농사에 없어서는 안될 농가의 가장 큰 재산인 소를 통해 조상들은 상대방의 무

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했다. 또, 떼지어 몰려다니며 잡신을 쫓아내는 지신밟기를 했다.

부잣집과 농사가 잘된 집만을 찾아갔던 것에서는 부의 분배와 배분의 미덕을 알 수 있다. 가진 자는 부족한 이에게 술과 음식을 나눠주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대가로 마을에서 우러난 축원을 했다.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과 추석날 밝은 밤에 마을의 처자들이 모여 둥근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속이기 위해 창안했다는 설도 있으나, 신라 이전인 삼한시대부터 유래했다고도 한다.

목청 좋고 가락이 구성인 사람의 선창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술래’ 후렴을 부르며 여인들은 애환을 달랬다.

한가위엔 아이들도 신났다. 서당이 쉬는 틈을 타 아이들은 원님놀이를 했다. 원님놀이는 학동 가운데 재치 있는 아이를 원님으로 뽑고 다른 학동들은 백

성이 돼 원님 소장을 내고 그 판결을 구하는 놀이이다.

아이들은 이웃마을 아이들과 가마싸움도 했다. 가마싸움은 가마를 끌고 넓은 마당에 나아가 마주보고 달려서 가마끼리 부딪혀 부서지는 편은 지게 되는 경기이다. 가마싸움에 이긴 편에서는 그 해에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속설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전남 진도에서는 한가위 전날인 음력 8월 14일 아이들이 밭에 가서 자기 나이수 대로 밭고랑을 기는 밭고랑 기기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에 음식을 마련해서 밭둑에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몸이 부스럼이 나지 않고 밭농사도 잘된다고 믿었다.

한편, 중국에는 중추절이란 이름으로 추석과 같은 만월제의 풍속이 있다. 이날 사람들은 달에 제사를 올리며 달을 상징하는 월병을 먹었다.

조동섭 기자

## 명락사 다문화여성 <추석 차례상 차리기와 예절교육>

# “한국의 전통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오른손을 위로 가게 해서 두손을 이마위에 갖다 대세요. 그리고 다리는 아빠다리를 하면서 천천히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면 돼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채 어딘가 어설픈 듯 절을 하는 모습에는 즐거움이 역력하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킁킁 거리는 모습에서 개구쟁이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보인다. 한복을 곱게 입고 절을 하는 이들은 모두 한국에 와 가정을 꾸리고 사는 다문화여성들이다.

본 결혼할 당시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있으나 정확히 한복을 입고 웃고름을 매는 법은 알지 못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리나씨는 “한복이 너무 예쁘다”며 “한복을 처음 입어보고, 웃고름도 처음 매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만 재밌다”고 말했다.

한복입어보기에 이어 예절연습과 차례교육이 이어졌다. 공수하는 법, 절하는 법, 차례 올리는 법은 좀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다문화여성들은 모두 열심히 설명

마지막으로 다문화여성들과 신도들은 모두 함께 둘러앉아 추석의 대표 음식인 송편을 만들었다. 예절교육을 받고, 차례교육을 받을 때는 다소 어색해 하던 여성들도 송편을 만들 때 만큼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연변에서 온 정혜월씨의 송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이 아무지다”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쁜 모양이 돋보였다.

다문화여성들과 신도들은 그렇게 송편을 빚으며 모국의 명절, 한국에서 맞는 추석 등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웠다.

## 차례 상 차리기·한복 입어보기 예절교육·송편 만들기 등 배워

을 들으며 그대로 따라했다.

중국에서 온 차홍숙씨는 “중국에서는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사라져 아쉬웠는데,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명락사 다도회장인 이수진씨는 “생각보다 행사에 참여한 여성분들이 성실하게 잘 따라주어 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절하는 법 등은 외국인인 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수진씨는 “한국에 온 지 4년이 됐지만 아직 송편을 빚어본 적이 없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 재밌었다”며 “이제 추석을 맞으면 송편과 부치기 등을 만들어 차례 상에 올려보아겠다”고 말했다.

김남수 사무국장은 “오늘 이렇게 다문화여성들이 한복도 입어보고, 절도 하고, 차례도 지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며 “대부분의 다문화여성들이 직장에 나가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 앞으로 이번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 이은정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다문화여성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명락사 신도들과 다문화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